

중 35예(27.3%)로서, 대조군에 비해 자기 유의한 증가, 감소가 있었다($p < 0.01$).

4) 만성신부전증, 만성사구체염, IgA 신장병증으로 진단된 예에서는 HBsAg 양성율은 자기 112명중 10예(8.9%), 16명중 3예(18.6%), 18명중 1예(5.6%)였고 anti-HBs 양성율은 자기 112명중 45예(40.2%), 11명중 7예(63.6%), 18명중 7예(38.9%)로서, 이들은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5) 신생검으로 신증후군으로 확인된 158명중, Minimal lesion nephrotic syndrome, mesangioproliferative glomerulopathy,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에서 HBsAg 양성율은 자기 85명중 16예(18.8%), 20명중 4예(20%), 0예(0%)로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, membranous nephropathy,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pathy에서는 자기 17명중 6예(35.3%), 28명중 12예(42.6%)로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($p < 0.025$, $p < 0.005$). 이들에서의 anti-HBs 양성율은 자기 77명중 17예(22.1%), 17명중 6예(35.3%), 3명중 2예(66.7%), 15명중 4예(26.7%), 25명중 6예(24.0%)로서, 이중 minimal lesion nephrotic syndrome만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($p < 0.005$).

이상의 결과로서, 신증후군증 막성사구체염과 막성중식성사구체염에서 혈청 HBsAg 양성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. 그러나 이로써 HBsAg이 이들의 병인요인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으며, 이를 탐하기 위해서는 신조직에서의 HBs Ag particle의 발견과 더불어 HBsAg, HBeAg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- 10 -

B형 간염 환자에 있어서 HBV markers에 따른 요검사 소견과 각종 신장질환에서 HBV markers의 분포

고신의대 내과

이원식 · 이성학 · 최광수

유호대 · 이시래

B형 간염바이러스가 면역기전을 통하여 사구체신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.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B형 간염의 이환율이 매우 높으므로 상당수의 신장염 환자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가

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.

이에 연구자들은 급만성 B형간염 및 그 보균자등 133예에서 HBV markers와 요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HBV markers에 따른 이상 요검사 소견의 빈도를 조사하였고 또한 44예의 신증후군을 포함한 각종 신장질환 105예에서 HBV markers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.

B형간염 및 보균자 등 133예에서 HBsAg만 양성이거나 HBsAg 및 HBeAg이 양성인 21예중 4예(19%)에서 이상 요검사 소견을 보였고 HBsAg 혹은 HBeAg이 양성이면서 동시에 Anti-HBc나 Anti-HBe가 양성인 65예 가운데서는 10예(15.4%)에서, HBsAg이나 HBeAg이 음성이면서 Anti-HBc 혹은 Anti-HBs 또는 이 두 항체 모두 양성인 39예중 6예(15.4%)에서 그리고 B형간염환원과 항체 모두 음성인 8예에서는 2예가 각각 이상 요검사 소견을 보였으나 이들 각 군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B형간염을 급성간염, 만성 활동성간염, 만성 지속성간염, 보균자, 간경변증 그리고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이상 요검사 소견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급성 간염에서 29예중 9예(10.3%)에서, 만성 활동성간염 24예중 5예(20.1%)에서, 만성 지속성간염 12예중 3예(25%)에서, 간경변증 11예중 4예(36.4%)에서 그리고 분류가 불확실한 27예 가운데 2예(7.4%)에서 각각 이상 요검사 소견을 보였다. 이상 요검사 소견의 진단기준은 단백이 (H)이상이거나 고백혈구에서 적혈구 수가 5개 이상일 때로 하였다.

신생검을 통하여 조직적 진단을 얻을 수 있었던 각종 신장질환 65예(신증후군 42예, 급성신장염 7예, 만성신장염 10예, Henoch Schönlein purpura에 동반된 신염 2예, 기타 7예)와 혈액투석이나 CAPD를 하고 있는 환자 40예에서 HBV markers를 조사한 결과 HBsAg과 Anti-HBc가 양성이거나 HBsAg, HBeAg 및 Anti-HBc가 모두 양성인 경우가 총 105예 가운데 27예(25.7%)였다.

신증후군에서는 membranoproliferative GN 11예 가운데 HBsAg과 Anti-HBc가 양성인 경우가 5예였고 Anti-HBc만 양성인 경우가 4예였다. Membranous glomerulopathy 8예 가운데 5예가 HBsAg, HBeAg 및 Anti-HBc 양성이었고 Anti-HBc 양성인 경우와 Anti-HBs 및 Anti HBs가 양성인 경우 그리고 B형간염 환원 및 항체 모두 음성인 경우가 각각 1예씩 있었다.